MULTI ASSET STRATEGY

2025. 5. 13.

글로벌투자전략팀

유승민 Chief strategist
strategist.you@samsung.com

이지혜 Research Associate
jhye53.lee@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미-중 관세 합의 이후 주목할 점

악마는 디테일에

- 미-중 경제무역회의 결과, 양국은 각각 115%pt의 관세 인하에 잠정 합의. 이제부터는 협상의 시간이나 변수 산재
- 향후 미국은 20%의 펜타닐 관세를 중국과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전망
- 주요 동맹국과는 상호 관세율을 10% 이하까지 인하할 것인지, 품목 관세율 적용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일 것

제네바 미-중 경제무역회의 결과, 미국이 대중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약 30%로 인하. 구성은 기존 관세율 트럼프 2기에 추가된 펜타닐 관련 20% 관세와 상호 관세 10%를 더한 것. (중국의 대미 관세는 약 10%)

트럼프 1기인 2018년부터 미국은 대중국 수입 관세를 단계별로 인상해 '평균 관세율'이 19~20% 수준까지 상승함[1]. 바이든 행정부 때는 평균 관세율 수준은 유지하는 가운데, 품목별 관세율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 예를 들어 전기차의 경우 트럼프 집권기에 대중국 수입 관세가 25%이었으나, 바이든 정부는 100%까지 인상. (표 2. 참고)

트럼프는 2기 집권 후 5차례에 걸쳐서 대중국 평균 관세를 145% 더 인상[2].

출발은 중국 발 펜타닐 공급망 차단을 요구하여, 2월 1일과 3월 3일에 각각 10%pt씩 관세를 올린 것. 이후 4월 2일에는 135개국에 일괄 10%,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50여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최소 11~50%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기존 WTO 체제하에서 책정된 관세율을 대체). 중국에는 34%의 상호 관세를 적용. 이후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자 2차례의 추가 관세 인상(50%, 41%).

지난 주말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경제무역회의에서 양국은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5월 14일부터 상호 간 관세율을 115%씩 인하하기로 발표.

미국의 경우 행정명령 14195, 14228에 의한 펜타닐 관련 관세 20%는 일단 유지. 대신 중국에 징벌적으로 부과했던 행정명령 14257에 의한 상호 관세는 24%pt를 낮춰 10%로 적용하고,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해 올렸던 91%pt는 취소한다고 발표 (행정명령 14259에 의해 50%, 14266에 의해 41% 인상한 바 있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1] 평균 관세율로 제시하는 것은 실제 품목별 관세율은 차이가 있기 때문

[2] 워낙 폭력적인 숫자이어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으나, 백악관의 행정명령에서는 일관되게 '추가 관세(additional rate of duty)'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이상의 결과에 의해서 현재 시행되는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약 30%가 됨.

향후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펜타닐 관련 논의가 중요할 것.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관세이며 20%pt는 중국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 만약 펜타닐 관세가 유지된다면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과거(20%)보다 높은 30% 평균 관세율에서 경쟁해야 함. 따라서 향후 90일간 유예 기간 중 관련 협상에 주목.

표 1. 트럼프 2기 대중국 관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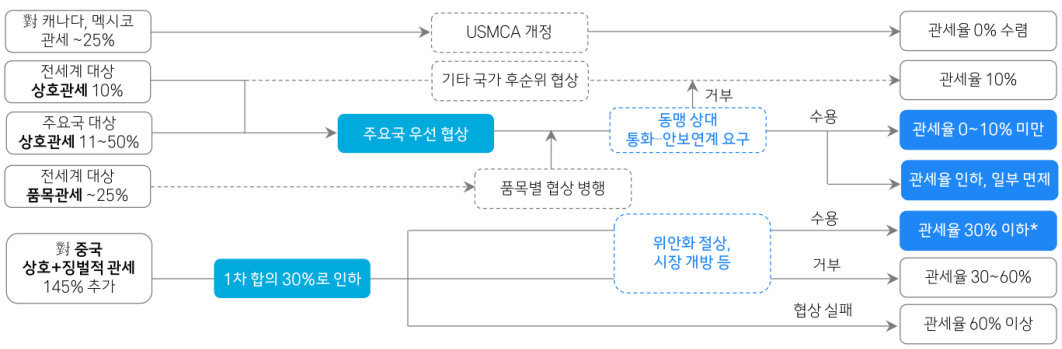
발표일	시행 방식	트럼프 2기 대중국 추가 관세 조치	조치 후 평균 관세율	이유(해석)
2월 1일	행정명령 14195	10%pt 인상 (펜타닐 관세)	약 30%	펜타닐 공급망 차단(기존 관세율 20%+10%pt)
3월 3일	행정명령 14228	10%pt 인상 (펜타닐 관세)	약 40%	행정명령 14195 요구에 中 미조치
4월 2일	행정명령 14257	34% 부과 (상호 관세)	약 54%	美 적자 유발 무역관행 개선(기존 관세율 대체)
4월 8일	행정명령 14259	50%pt 인상	약 104%	中 보복 관세(34%pt)에 대응
4월 9일	행정명령 14266	41%pt 인상	약 145%	中 보복 관세(34%+50%pt)에 대응
5월 12일	EO14257 일부 유예 EO 14259, 14266 수정	24%pt 유예 (90일간) 91%pt 인하	약 30%(잠정)	미-중 경제무역회의 결과 반영

참고: 모든 EO(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NEA, IEEPA, 무역법 604조, 무역법 301조 등
자료: 美 백악관, 삼성증권

한편, 이번 미-중 합의로 주요국과 진행 중인 협상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 당사의 또 다른 관심사는 향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기본 '상호 관세 10%'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지 여부. 영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에도 선례적 협상에서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10%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함. 다만 관련하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10%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예외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주목.

혹시 각국, 특히 동맹국에 대해 환율 정책(또는 외환 보유고 운용)에 대해 간섭을 시사하는지가 주목. 물론 자유화된 외환시장,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등으로 과거 스미스소니언 협정, 플라자 합의 등과 같이 직접 시장개입이 필요한 협정 체결은 논란. 그러나 간접적 방식을 통해 유사한 목표 달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경로나 무역 이외(안보, 외교 등)에서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

그림 1. 트럼프 행정부 관세 협상 예상 시나리오



참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 관세율은 20%
자료: 삼성증권

품목별 관세 또한 변수. 트럼프 2 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 조에 의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영국과 개별 협상에서 자동차에 연간 10 만 대의 쿼터에 대해 10%의 관세를, 나머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관세 면제를 발표. 이 사례로 보면, 향후 미국과 주요국의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 또한 중요 안건이 될 전망. 경우에 따라 주요국들은 상호 관세 10%를 유지하고 품목관세 인하, 면제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

따라서 미-중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이 촉발한 갈등은 일단 고비를 넘겼으나 향후 협상 과정은 난항 예상.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관세 20%를 레버리지로 다양한 요구를 할 가능성. 그리고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는 안보를 매개로 '10% 이하 상호 관세 적용 또는 품목별 관세 인하' 등에 대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

한국은 기존 한-미 FTA 체제에서 사실상 0%의 관세를 부담했는데, 상호 관세 25%는 큰 위협. 향후 협상을 통해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조건의 10%의 상호 관세가 책정되더라도 호재로 보기는 어려움. 특히 품목별 관세 수준에 따라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각국의 관세 인상 릴레이가 있을 경우 대체 시장 확보가 여의치 못할 가능성 등이 관건.

표 2. 트럼프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품목별 대중국 관세 변화

품목명 (%)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25	100
태양광 패널	25	50
반도체	25	50
주사기·바늘	0	50
배터리 부품	7.5	25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	25
非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	25
철강·알루미늄 제품	0~7.5	25
천연 흑연	0	25
영구 자석	0	25
그 외 핵심광물	0	25
안면 마스크 등 개인보호 의료장비	0~7.5	25
의료용 장갑	7.5	25
항구용(STS) 크레인	0	25

참고: 바이든은 '24년 5월 트럼프의 제301조 조치 4년 차 보고서에 추가 관세 인상
자료: KIEP,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